

# 땅 끝까지 살려야 할 이유와 방법 -복음으로 여는 사도행전-

창세기 1:26-28, 사도행전 2:1-4

정윤돈 목사님

이번 주간은 캠프 주간이었다. 첫날, 집 앞에 있는 편의점 사모님에게 복음을 약간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자주 오시면서 왜 이야기를 안 하느냐 했었다면서, 평소의 모습을 보면서 신뢰가 갔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 틈틈이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줬었고, 선교지에서 있었던 것도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복음을 전했다니, 이분이 자세하게 잘 들었다. 이 부부가 참 성실하게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밤낮으로 많은 수고를 하더라. 그래서 천국 가면 일을 안 해도 된다고 했더니, 이분이 질문했다. 아무도 일을 안 하면 천국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는 것이다. (웃음) 그런 질문은 또 처음 들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대답을 해 줬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 태양 사용료를 우리가 낸 적이 없다. 지구 탐승권을 산 적이 없다. 빗물도, 공기도 공짜로 사용한다. 곡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모두 공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직업이 다 없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에덴동산처럼 놀기만 하면 된다. 나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설거지하는 기계가 나왔으면 좋겠다. 설거지가 쌓이면 우리 부인의 얼굴이 너무 무서워진다. (웃음) 내가 사업을 한다면 설거지하는 기계를 만들겠다. 설거지하는 로봇을 만들겠다. 일단 필요한 것이 깨지지 않는 그릇이다. 목욕탕만큼 싱크대도 커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 봤다. 설거지 할 때마다 놀려서. (웃음) 인터넷을 보니까 이미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더라. 어떤 사람은 몇 조 원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로봇을 만들고 있다.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에덴동산에 우리를 두셨을 때는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성과 믿음이 회복되면,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다.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게 된다. 우리 개인과 나라와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나가면 이제 다른 것이 다 필요없게 된다. 이제 영성 회복이라는 한 가지만 남는다. 모든 것이 풍요로워져도 인간성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할 이유와, 세상을 살릴 성경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다.

## 서론 : 사도행전 개요

(1)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다.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데오빌이라는 엘리트에게 쓴 편지다. 데오빌로는 본명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그 뜻이 '하나님(Θεο)을 사랑하는(αγαπο) 자'라는 말이다. 그래서 아마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시대 속에서 본명 대신 애칭으로 불렸을 것 같다는 학자들이 많다. 나도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본명은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의사 누가가 이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 자세하게 적어서 보낸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보낸 것이 사도행전이다. 전도캠프를 위한 편지다. 12월 3일에 우리가 지역 주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집회를 하는데, 대상자에 맞게 집회를 하고 행사도 하고 편지도 쓰는 것이다. 김장도 하고, 음악회도 한다. 엘리트에게는 글을 써서 보낸다. 엘리트들은 글을 잘 읽기 때문이다. 많은 자료를, 대상자에게 맞게, 도움이 되도록 전달하는 것이다. 도움이 되는 자료를 보내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잘 준비되고 훈련되고 복상을 해야 하였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으며, 사도바울의 전도 사역에 늦게 합류한 멤버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 만약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부분, 특히 탄생에 대한 많은 부분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고, 특히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전도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2) 이 책의 제목은 원래 '행전'이었다. 사도들 외에도, 종직자들의 행전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도행전, 선교행전, 초기교회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사도행전이라고 불렀는가 하면, 다른 행전과 역사 기록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들에 의해 검증된 역사서는 의미로 사도행전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이다. 정경성(正經性)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만약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쳤을 것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 사역을 해야 하는지 모델도 기준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신학교를 다닐 때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어도 사도행전은 이해를 못 했는데, 이제 전도운동을 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사도행전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지 않나? 전도 현장, 선교 현장을 가 보니까 너무 사도행전 내용과 똑같은 것이다. 지난번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에 갔었는데, 선교사님과 현지 제자들이 '신학교를 해야 한다고' 뜻을 모은 것이다. 핍박받기 때문에 몰래 해야 하는데, 장소를 찾아보자 해서 간 것이다. 빌딩 주인을 만났는데, '여기에서 뭐 하려고 하느냐?' 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학교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안 되는데, 옆 사람이 그만 말해버린 것이다. '끝났다. 이제는 할 수 없겠구나.' 그런데 건물주가 재차 물었다. "진짜 할 겁니까?" 눈치도 없이 옆 사람이, "진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를 따라오라는 것이다. 어디로 끌려가는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더니, 다시 물었다. "정말 할 겁니까?" 그러면서 털어놓았다. 자기가 가정교회 장로인데, 하나님이 너무 축복하셔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빌딩의 한 층은 신학교로 드리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10억 짜리를 2억에 전부 등기 이전까지 마쳐 주었다. 내부 인테리어까지 번쩍이도록 다 해 놓았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역사 그대로였다. 지금 이 시대에도 참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신다. 램프를 통해서 예비된 제자를 만나고 예비된 인물들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만난 엘리트 제자가 누가인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엘리트들 전도하지 않는가.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나타날 줄 믿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위대한 작품과 보화를 남겨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도 이 땅에서 위대한 영적 유산과 작품을 남길 수 있기를 축원한다.

(3) 사도행전의 가치는 단지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기록물이라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 뿐 아니라 성경적 전도방법을 2천 년이 지난 지금도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몇 천 년이 지나도,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시대가 달라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지 않다. 결국 사도행전은 우리가 전 세계와 로마까지 살려야 할 이유와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는, 세계복음화의 매뉴얼 역할을 하는 것이다.

(4) 사도행전의 전체 구성과 내용을 간단히 보면, 28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앞 부분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마가다라방교회와 베드로의 사역이고, 후반부는 바울팀의 로마 복음화 사역이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다. 제자들이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다. 이것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형상과 같은 것이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처음 주신 말씀이 다시라는 것이었다. 인간이 리더가 되려면, 인간관계도 잘 해야 하고, 설득도 잘 해야 하고, 인내도 해야 한다. 이 모든 리더십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다. 모든 것을 누리도록 부족함 없는 축복을 주신 것이다. 이 에덴동산은 놀고 먹는 곳이다. 천국은 놀고 먹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해진다. 여러분, 이미 복음이 먼저 들어간 복지국가는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복지국가가 될 줄 믿는다. 우리가 응답받으면 옆의 나라들이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첨단기술은 일본에서 배워서 중국에 팔고, 그러나 우리가 잘못 응답받으면 옆 나라들이 다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든든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성령충만을 받는 것이다. 시대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다. 몇 명의 램프 몇 명의 종직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시대를 축복하시는 것이다. 그 일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셔야 한다. 몇몇 사람만 일어나도 된다. 여러분이 모두 그 응답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오겠는가.

3장에 보면, 얌은뱀이를 일으킨다. 모델이라는 말이다. 4장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담대하게 전했다. 5장에서는 문제가 일어났는데, 6장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종직자가 일어났다. 이들이 7장에서 먼저 순교했고, 8장에서 먼저 선교했다. 이렇게 하나가 9장에서 시대 살릴 바울이 부름을 받는다. 준비가 되니까, 10장에서, 로마를 뒤집을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오는데는 것이다. 나는 천국에 가서 찾아보고 싶다. 고넬료의 후대초대교회 역사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 마가다라방의 후손들이 그 시대에 어떤 역사를 이루었을까. 루터의 조상이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 천대까지 축복하셨을 것이다. 핍박이 와서 11장에서는 안디옥교회가 세워진다.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다. 13장에서 안디옥교회는 바울과 같은 제자를 파송한다. 14장에서 디모데 같은 제자를 찾는다. 15장에서 다시 파송을 받고 순회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아시아에서 은혜 받았으니까 다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유럽으로, 마게도나와 아가야로 바울을 보내시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 전도캠프를 할 때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 인도는, 우리가 어떻게 계획했더라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자기 바뀌어서 가실 수 있다. 그 인도를 언제든지 따라가도록 배우는 훈련이 전도캠프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게 사도행전이었다. 모든 것을 계획하지만, 끝까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우리의 발걸음은 성령인도를 따라가는 발걸음이다.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간다. 전도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교회를 가지고, 전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주장하면 아무도 못 말한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이것을 다 버리고 따라갔더니 루디아를 만난 것이다. 아손을 만나고 브리사가 부부를 만난 것이다. 그 모든 준비를 가지고 예배소에서 세계복음화의 대 역사가 일어날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 이 경험이 없이 예배소에 갔으면 안 열렸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핍박을 받으니까, 마게도나와 아가야를 다시 순회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때 누가가 예루살렘에 같이 갔던 것이다. 바울은 2년 동안 옥에 갇혔는데, 그때 자료를 수집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 예루살렘에 갈 기회가 없었던 이방인 누가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이 이 시기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을 인터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기간이었다. 그렇게 해서 27장, 28장에 드디어 로마까지 가게 된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전체적 줄거리이다.

## 1.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땅 끝까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왜 그 명령은 지금도 유효한가? 우리는 왜 237개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1)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단의 자녀로 사단에게 소속되어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지 않나. 내가 전에 개척했던 교회에 장로님 가족이 있었다. 어떻게 이분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면, 아이가 먼저 캠프를 했을 때 복음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어린 딸이 밥을 먹다가 엄마하고 말쑥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는 마귀야!' 했던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 엄마가 충격을 받아서 복음을 받게 되었다. 결국 여자 장로님까지 되었다. 내가 어릴 때의 일이다.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붙잡고 내가 이야기를 한 것이다. "내가 한 마디는 해야 되겠다. 지금 네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 같아, 지옥에 갈 것 같아?" 심각해지더니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 주부터 나와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아주 작은 죄라도 가지고 있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나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 시대는 점점 발전할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간다. 이런 불신앙, 죄, 사단 문제는 창세기 3장 때부터 계속되고 있다. 이게 원죄다. 이 근본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왜인가?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왜 기독교는 오직을 강조하는가? 우리가 설명을 잘 해 주어야 한다. 다른 종교는 다 나쁘고 기독교만이 좋다는 게 아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종교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다. 섬길 뿐이다. 종 될 뿐이다. 오직 복음만이 사탄을 이기는 길이다. 스님들에게 물어보라. 유명한 스님도 이야기했다. “석가는 마귀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정말 정직한 분이다. 깊은 목상을 한 분이다. 그러나 그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답을 우리가 주지 못했다. 다음주에는 주지스님에게 가서 진실하게 이야기해 보라. 석가는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다. 예수님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절대 no라고 하지 못할 것이다. no라고 한다면 그것은 맹종이다. 대사님이라면 알 것이다. 오직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뿐이다. 지식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식 많은 사람이 더 사악하고 더럽게 죄를 짓는다. 과학으로 저주, 재앙,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과학이 발달하면 핵폭탄을 만든다. 더 죄악을 만든다. 편해질 수는 있지만 인간, 가정, 후대는 지킬 수 없다. 과학이 발달해서 스마트폰이 생겼는데, 이것 가지고 도박을 한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가. 과거에는 도박장에 직접 가야 했다. 지금은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 램프들이 필요한 돈이 많은데 여러분은 안 주니까, 여기를 찾아가. 문명의 이기가 후대를 다 망가뜨릴 수 있다. 복음을 누리면 후대에게 모든 것이 축복인데 복음이 빠지면 모든 것이 재앙이 된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으며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한 것이다. 베드로도 담대하게 ‘다른 이름은 없다, 하나님이 친하 인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고 말한 것이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이만화라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뿐이다. 기적 하나도 일으키지 못하는 자다. 만약 일으킨다 해도 그것 역시 해답이 되지 못한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씀한다.

(2) 온 세상이 네피림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흉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동성애까지 가도록 타락해 버렸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흘러가면서 타락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것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이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다. 죄가 쌓이고 쌓여서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이것을 살릴 길은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을 사함받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

(3)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교만의 극치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다. 지금도 얼마나 바벨탑을 많이 짓는지 모른다. 목회자도 잘못된 자기 바벨탑을 지을 수 있다. 그리스도 말하면서 나의 것을 쌓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유리한 말씀만 들으면 안 된다. 강단 메시지를 받을 때 저자의 의도, 설교자의 의도를 붙잡아야 한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핵심 주제를 붙잡아야 한다. 대부분 성도들이 나에게 맞는 말은 붙잡고 아니면 붙잡지 않는다. 나에게 은혜되는 것만 붙잡는다. 기도수첩을 할 때도 그렇다. 말씀을 받을 때는 메신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붙잡아야 한다. 그래야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 있다.

(4) 로마 시대에는 곳곳에 무속, 점술, 우상 문화가 깔려 있었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 팀은 세계를 살릴 천명, 소명,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이다.

(5) 모든 개인은 에루살렘 성전, 시몬 앞에서 구걸하는 앓은뱅이처럼 병들고 희망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다. 개개인이 그렇게 망해가고 있었다.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아반인들이 다 마찬가지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앓은뱅이였다. 앓은뱅이는 성전 앞에 오랫동안 앉아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했다.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너무 많다. 복음을 몰랐다. 복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육신적인 것만 채웠다. 영혼은 죽어 있었다. 교회 다니면서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영혼은 죽어있는 사람이 많다. 그분들을 살려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영적으로는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자제가 안 되어 있는 황폐한 사람들이 많다. 교회 안에서 뭐가 섭섭하고, 뭔가를 주장하고, 이익을 주장하면, 복음은 절대 들어오지 않게 된다. 이런 생각, 먹을 것 생각, 육신적 생각, 내 목적 생각에 잡혀있으면 순수한 복음이 안 들어온다. 앓은뱅이가 성전 앞에서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 않았다. 누가 더 동전을 던져줄 것인지 생각하고 있었다. 육신적으로는 걸지 못하는 장애에 빠져 있었다. 남에게 구걸하고 있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이 오지 않는다. 그런 분들이 천원짜리 하나씩을 받아간다.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우리 누님이 과거에 계시던 교회는 100명 정도 모였는데, 모일 때마다 천 원 씩을 줬다. 그러니까 부흥은 되는데 절반이 서울 전역에서 모여온 구걸하는 사람들이었다. 복지는 전문인들에게 맡겨야 한다. 교회는 복음만 전해야 한다. 전문 시스템에 맡겨야 한다. 장애인, 정신질환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예배시간에 정신치유를 따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 다 병들어있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이 앓은뱅이는 마음과 정신이 온전할 수 없었다. 돈이 없다고 잘못되고 돈이 있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다. 돈이 많아도 육신에 매여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 것도 없고 빛만 많아도 영적인 사람이 있다. 내세에 대한 관심도 소망도, 후대에 대한 희망도 없었을 것이다.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에 전형적으로 빠져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청소년들도 그렇다. 나만 생각한다. 내 목적만 생각한다. 크게 생각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올 텐데, 내 사업만, 내 목적만, 내가 사고 싶은 옷만, 화장품만 생각한다. 그래서 올 것도 안 오게 된다. 그런데 이 앓은뱅이가 전도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것이다. 베드로는 이 사람의 영혼을 고쳐주기를 원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포한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 3:6이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려라.” 은과 금도 생기게 되어 있다. 원래 인간을 하나님은 필요롭게 만드셨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강하게 된다. 오늘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잠깐 커피나 테니스 우승을 했다는 것이다. 스포츠 선수 중에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테니스 선수다. 돈 이야기 나오면 나는 유심히 듣는데, 내 이름이 돈이니까. (웃음) 이 대회에 앞으로 세계 테니스를 이끌 미래의 주역 선수들이 참여했는데, 한국

선수가 여기에서 우승했다. 한 사람만 응답받아도 개혁될 것이다. 하나님은 곳곳에서 우리나라를 축복하고 계시지 않나.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해서 모두 살려내기를 바란다. 사도행전 시대 뿐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열두 가지 문제 안에 있는 오만 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공허하다. 행복하지 않다. 희망이 없다. 그러나 자기 자살하고 싶어한다. 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 이들에게 답을 주는, 살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고 가문 살리고 기도해야 하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해방받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로 복음 받고 성령충만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헌신 중 가장 가치있는 헌신이 영혼 살리는 것이다.

## 2.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세계를 살리는 길

큰 두 번째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세계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되겠다. 땅 끝이 어디인가? 문제 만난 현장, 도박과 알콜중독, 정신문제, 무속 현장이 땅 끝이다. 성령이 임하실 때 땅 끝까지 살리게 될 것이다.

(1)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마귀다려방이다.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중요하다.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다. 오직 예수의 사람이 모인 곳이 마귀다려방이었다. 여러분도 그런 인물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이번 캠프가 그래서 그 전 캠프와 다르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단한 팀이 가니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현장을 살리는지 모른다. 한 분 한 분 보면 문제가 많다. 그런데 전도현장 가니까 행복하다고 한다. 육적으로는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전도 현장 가서 생명 살릴 때 내가 살아난다. 그리스도로 끝났기 때문이다.

(2) 두 번째 방법은 성령충만을 받는 것이다. 영적으로 서밋이 되었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영적 서밋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켜 주셨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계로 나가기 전에 마귀다려방에 모여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충만을 기다렸는데 오순절 날에 이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 응답을 받게 되었다. 세계를 살리게 될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함으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모든 성도들과 램프들은 나만의 성령충만의 시간과 서밋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란다.

(3) 세 번째 세계 살리는 방법은 제자 팀 형성이다. 바울은 항상 먼저 제자를 찾고 팀 형성을 하여 현장을 살렸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루디아 팀,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야손 팀, 사도행전 18장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한 팀을 이루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 가서 두란노에서 제자 팀을 이루어 지역과 세계 전체를 복음화했다. 그 모델적인 인물이 사도행전 20:4 이하에 나온다. 이것을 보면 ‘대단한 팀이요’ 하는 생각이 든다. 에루살렘에 가기 전에 모아서 훈련한 팀이다. 1, 2, 3차 선교사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팀이다. 그 명단을 보라.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뢰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티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로라.” 너무 멋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란다. 그 응답을 이미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4) 집중의 방법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귀다려방에서 집중했다. 에베소, 두란노서원에서 집중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길게도 하지 않고 3주 동안 집중했다. 여러분은 훈련을 다 받았다. 그래서 길게 할 필요도 없다. 앞으로 여자 장로님, 여자 권사님, 남자 장로님, 남자 안수집사님, 대학청년을 차례대로 집중훈련을 하려고 한다. 길게 안 하려고 한다. 이미 다 결론 났으니 짧게 하고 현장 나가서 문 열고 지교회 만들고 응답받아야 되겠다. 고린도에서 집중훈련을 해서 그리스도와 세계 살리는 교회를 세웠다. 결국 로마를 살리게 되었다. 바울은 자기 집중의 목표가 있었다. 세계 살리기 위해서 로마를 살려야 한다는 정확한 목표가 있었다. 여러분도 각 분야에서, 직업 현장에서, 내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로마를 찾고,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집중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나는 대학에서 레포트를 쓸 때 15시간 정도 집중해 보니까 거의 A+가 나오더라. 우리 램프들을 보니까 다 학점을 잘 받아온다. 그런 선배들이 되기를 바란다. 작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나의 시간표에 집중하는 것이다. 나의 시간표에 집중하는 것이다. 내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다.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영적 서밋에서 기능 서밋, 문화서밋, 경제 서밋까지 응답받으시기 바란다.

사도행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미션을 드리려고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바울이 활동했던 유대와 소아시아, 마케도냐, 로마와 전 세계는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었다. 그 시대는 그리스 로마 문명이 번창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문명을 꽃피웠던 시대였지만, 반면 가장 타락과 우상숭배와 살육의 전쟁이 극심했던 시대이기도 했다. 이렇게 영육간에 많은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시대를 살리는 길은, 참된 복음운동을 하여, 원래 인간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외에는 없다. 고벨로 같은 제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로마를 살린 인물이었다. 올해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지금 세계 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답이라고 말한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다.

(1)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되겠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이 고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2) 복음 안에서 사도바울과 같이 모든 분야에서 복음화할 팀 형성을 하는 것이다.

(3)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했던 것처럼 집중이 회복될 때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시대처럼 걸모습은 발전되고,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더 황폐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넘쳐나는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 팀처럼 땅 끝까지 가서 세계를 살리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